

사찰 재정공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3차 100인 대중공사, 구체적 방안은

추진위·의제기획팀서 추후 발표키로

‘사찰 재정 투명화’를 주제로 열린 3차 100인 대중공사에 참가한 사부 대중은 사찰 재정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신도들에게 재정을 공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정 공개 사찰과 공개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와 의제기획팀이 마련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3월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3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참가자들은 사찰예산회계법에 따른 예산 편성과 결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결산액 기준 10억 원 이상 사찰 81곳 가운데 59%가 사보나 법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는 브리핑과 사찰 사례 발표를 통해 대다수 사찰에서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월령이나 사찰 재정 유용 등 일부 일탈 행위로 인해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불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재정과 불사계획, 사업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 공개 △도심사찰과 산중사찰, 포교당 등 사찰 특성에 맞는 공개 기준 마련 △분담금 책정의 공평성 확보 △사찰

규모에 따라 사찰 재정의 단계별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놴. 또 재정 투명성 확보가 승려복지제도와 연관된 부분이 많은 만큼 교구를 중심으로 승려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승려복지를 위한 직영사찰을 지정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화재관람료 사찰이나 관광 사찰에는 카드 결제와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문화재관람료 수입이나 토지처분금 등은 해당 사찰이 아닌 종단 목적기금, 포교와 교육을 위한 기금 등 공적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추진위원장 도법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2015년도에 재정 투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의제기획팀은 구체적인 재정 공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직영사찰과 직할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결산액 기준 30억 원 이상 사찰 등의 재정 공개를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사찰 재정 공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4차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4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3편

공주=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5월11일 동산 대중사 50주기

범어사 다채로운 기념행사

청정승단 구현을 위해 정화불사에 앞장서는 등 근현대 한국불교의 초석(礎石)을 놓은 동산대중사 50주기 추모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스님)는 오는 5월11일 ‘동산대중사 50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하는 것을 비롯해 사 진전사회와 교학대회를 개최한다. 8월15일에는 추모사진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통합종단 이진 조계종 중정을 역임한 동산대중사는 용성스님의 법맥을 계승한 선지식이다. 한국불교 정통성을 계승한 조계종 탄생의 주

역인 동산대중사는 수행 정진과 후학양성, 전법교화를 위해 평생 헌신했다. 또한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범어사의 위상을 제고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다.

5월11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할 예정인 추모대제는 기존 추모다례를 확대해 진행한다.

추모대제에 맞춰 동산대중사의 각종 사진을 전시해 추도 열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5월3일에는 동산문도회와 함께 설법전에서 ‘동산대중사 문도 교학대회’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2편

범어사=이성수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중국 심양 칠보산호텔에서 남북불교대표자회담을 갖고 광복70주년 남북합동법회 동법회 봉행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복70주년 8·15 남북합동법회 봉행 합의

총무원장 자승스님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

4년 만에 중국 심양서

남북불교 대표자 회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3월26일 중국 심양 칠보산호텔에서 강수린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오는 8월 광복70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11년 9월 당시 조불련 위원장이었던 심상진 위원장과의 대표자 회담 이후 4년여 만에 성사된 남북 불교 최고위급 대표자 간 회담이다.

이날 남북 대표단은 북측 대표단에게 오는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남북합동법회 추진을 제의했다. 이에 북측 대표단은 기원대회 초청에 감사를 표했으며 차후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8월15일 광복절 즈음 금

후 빨리 만나고 싶었다”며 “이렇게 만나게 돼 반갑고 남북불교 단합을 위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정치적 상황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공존과 상생, 합심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 원칙을 가지고 대화해나가자”고 말했다. 강수린 위원장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초면인 것 같지 않다”고 반가움을 표하며 “해방 70돌, 6·15공동선언 1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앞으로 남북불교도들이 손을 맞잡고 소통해나가자”고 회담했다.

이날 남북 대표단으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스님, 사무총장 진호스님을 비롯해 민주본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북측 대표단으로는 차금철 조불련 서기장과

조불련 부장 해안스님, 김철을 조불련 평양시 신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회담이 진행된 이날은 5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날이어서 5·24 조치 등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남북 긴장관계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12월30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통해 강수린 위원장에게 가까운 시일 내 남북불교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 간의 만남을 제의했다. 이에 강수린 위원장도 같은 날 차금철 조불련 서기장을 통해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불교도 사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중헌 개정안 ‘인존’

8일 원로회의 개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가 오는 8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정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을 70세 이상

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헌개정안을 인준하는 제48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헌개정안 인준의 건으로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3월18일 제20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중헌개정안은 △중정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을 70세 이상으

로 상향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변경 △총림 방장의 중임 금지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11일 공식 출범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아생와·보물 찾아 떠나는 불여행

14·15편

남해 염불암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결의사항

지난 3월 16일 열린비구니모임 결의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현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불신임 및 운영위원장 계환스님 불인정 등 6개 결의사항을 참석 대중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비구니회관 장소사용 불허와 함께 비구니회장 신변보호 및 건물보호요청을 경찰에게 의뢰한 상태였고 주변에는 경찰들이 포진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의대회는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을 비롯한 여러 원로스님과 전국의 5백여 비구니 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비구니회관 앞 마당에서 차분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명성스님은 범당 내에서 여범하게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습 아파하시며 “전국비구니회관 범룡사는 전국 비구니들이 십시일반 희사해서 만든 전국 비구니의 선불장이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염원으로 모신 삼세체를 범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은 경계 받아야 할 상황을 초래한 이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현 집행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결의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열린비구니모임 공동대표와 전국 15개 지역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현 집행부의 온갖 유언비어와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의대회에 동참해주신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9년 3월 27일



① 회장 불신임 ② 운영위원장 불인정 ③ 운영위원회 불인정
④ 제16대 비구니총회의원 추천 무효 ⑤ 회칙 개정 ⑥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사항 동참 서명은 ‘전국비구니회를 바로 세움’입니다.